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Welcome!!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2. 예배에 대한 안내

모든 공예배(주일, 수요, 토요)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1) 현장예배
- 지정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배 후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대면접촉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예배
- 정확한 시간에 단정한 복장으로, 현장에서 예배할 때와 똑같이 예배합시다.
- 예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온 가족이 경건하게 예물을 드립시다.

**온라인 헌금 계좌: 082902757 501711864(Centenial Bank)
**교회 주소: 8201 Frenchmans Ln, Little Rock, AR 72209

3) 어린이 및 유스가 있는 가정에서는 예배 전 후에 꼭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및 단체채팅방에 링크 된 컨텐츠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공지게시판과 단체채팅방에 영어사용자를 위한 설교요약문과 주보가 링크되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6월 대표기도

20일: 조순자, 27일: 전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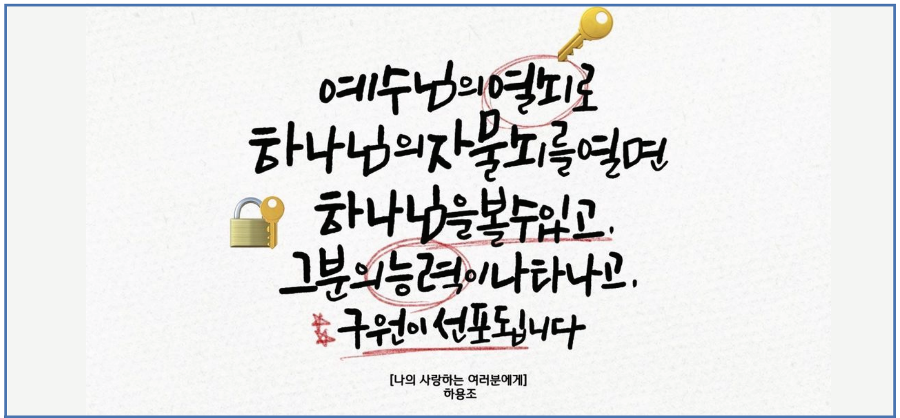
4. 기타 광고

1) 다음 주일 오후에 6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2) 담임목사 휴가: 6월 28(월)-7월 3일(토)
3) 담임목사 교육: 7월 10(토)-15일(목)(PAS 목회자 연장교육)

5. 기도합시다! Pray at Home

1. 코로나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
2. 특별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가 일부의 나라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3. 이땅에서 폭력과 인종차별과 우월주의가 사라지고,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사라지도록
4. 교회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배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5.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6.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6월의 묵상 본문 : 시편, 출애굽기



알칸사사랑의교회
CP ARKANSAS KOREAN LOVING CHURCH

2021년 6월 13일
제1038호, 2021-24
담임목사 : 홍성태(Rev. Hong)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주일 오전 11:00 — 인도: 홍성태 목사 [Pastor Hong]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Jubilate Praise Team	
참회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Together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Together
찬 송	Hymn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김효정 집사	Bro. Yongjin Song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Pastor Hong
설 교	Sermon	히브리서 [Hebrews] 13:19-22 **할많하않** **[I have written BRIEFLY]**	홍성태 목사(Pastor Hong)
송 영	Doxology	선한 능력으로	Von Guten Mächten
축 도	Benediction	설교자	Pastor Hong

**예배 중 헌금시간이 없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Offering time during worship. Please do it before the service.

주 중 모 임 [Weekly Meetings]

수요예배 [Wendesday] (6월 16일 저녁 7:30)	토요예배 [Saturday] (6월 19일 오전 7:00)	목장모임 [Small Group]
이런 일의 이유 [This Occurred Because...] [열왕기하(2 Kings) 17:1-8]	생명의 삶[Living Life] [출애굽기(Exodus) 28:15-30]	당분간 열리지 않습니다. [Temporary Closed]

8201 Frenchmans Ln, Little Rock, AR 72209, 501)703-3251

은혜 나눔

Take Care How You Hear: How to Receive God' s Word

by Marshall Segal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성경을 읽는 습관을 던져 버리는 법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하나같이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위험에 관해서 경고했다. 씨 뿌리는 예화를 들을 때면 우리는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어쩌면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 말라서 시드는 땅, 또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비유는 분명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하고만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눅 8:18).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좋은 땅이라고 간주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라는 말이다. 내 마음밭이 계속해서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도록,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유혹과 방심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비유에서 늘 '땅의 종류'를 주목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씨'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 8:11).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바둥거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선포되는 복음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듣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씨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음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겸손, 순종 그리고 기도다. 겸손이 가장 먼저다. 이 세상에 교만보다 우리의 마음밭에 독이 되는 것은 없다. 매일 성경을 읽는 데 바쁜 것은 그리 큰 위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겸손함이 가득한 땅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사 66:2). 이런 겸손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기쁘게 받아들이기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즐거운 복종으로 이어진다. 말씀은 좀 더 나은 삶, 더 나은 생산성,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에 관한 조언이 아니다.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렇기에 당연히 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가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 때는 도망갈 생각을 갖고,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씨를 뿌리면서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으면서 거룩을 포기하고 또 고통과 희생없이 기쁨을 얻는 식의 반쪽짜리 헌신을 할 여지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또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며, 최소화하고 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신 18:19). 이런 죄악은 도둑질, 간통, 또는 살인보다 더 중한 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모든 죄를 더 사악하게 만드는 죄악이다. 그러나 즐겁게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길이다.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마지막으로 겸손과 복종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한마디로 조금 불편할 정도로 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도문이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시 119:15 - 16).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바로 이 시편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우리는 119편에서 다음 일곱 가지 기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 커지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시 119:36).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시 119:32).

2.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시 119:27).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시119:73; 시 119:125, 144, 169).

3.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시 119:56).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시 119:2, 4).

4. 내 인생의 길에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5. 슬픔 중에 있는 나를 강건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시 119:28).

6. 모든 종류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시 119:37).

7. 당신의 약속을 지키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시 119:116).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시 119:140).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 8:15).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겸손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 날로 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베뢰아사람들처럼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존 파이퍼(John Piper)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것은 매일 성경 속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으로 호흡하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그 호흡을 참으려고 하지 마라. 매일 호흡해야 한다.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움을 체험하라. 겸손으로 말씀 앞에서 기쁘게 복종하라. 그리고 더 큰 깨달음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라.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지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마샬 시걸은 작가이자 desiringGod.org의 책임 편집자이다. Bethlehem College & Seminary를 졸업했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의 저자이다.